

정책자료
2021. 03.

국민행복지수

2021년 3월

국가미래연구원

1. 국민행복지수와 경제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 국민행복지수의 측정

-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외에 삶의 질, 환경 등을 포함하여 경제후생(welfare) 및 국민행복을 추정하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 순 경제후생(NEW: Net Economic Welfare) = GNP-공해비용+
 - 가정주부서비스+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가정주부서비스+여가가치
 -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발전의 측정’
 -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신 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
 - 이외에도 UN, OECD 등에서도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발표
 - 한국의 OECD행복지수(BLI) 순위는 36개국 중 24위(2013년), HPI지수 순위는 151개국 중 63위(2012년)로 낮은 수준임

□ 국민행복지수(People's Happiness Index: PHI)의 측정 사례

-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소득분배, 경제안정 등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 Osberg and Sharpe(2002), 남주하·김상봉(2012): 가계의 경제행복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부문,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 부문,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성 등을 포함
 - 오쿤의 고통지수(misery index): 실업률과 물가를 고려하여 고통지수 산출
 - 사무엘슨의 행복 공식: 행복=소비/욕망
 - 경제학 이외의 이전연구에 의해 논의될 수 있는 변수: 연령과 행복: Mroczek and Kolarz(1998), 성별과 행복: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결혼과 행복: Lee, Seccombe, and Shehan(1991), 실업, 정치, 법 또는 제도 등

〈표 1〉 행복지수의 측정과 사례

경제지표를 이용한 측정	중요항목
국민총소득(GNI)	순소득과 수출입 품목의 교역조건 등
국민순소득(NNI)	가처분소득 등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녹색GNP(GreenGNP), 가정주부서비스, 여가가치 등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	
해외	중요항목
Osberg and Sharpe(2002)의 경제행복지수	1인당소비지출(C), 1인당자본스톡(K), 빈곤의심화정도(LIM), 실업(UR) 등
오쿤의 고통지수	실업률, 물가 등
Mroczek and Kolarz(1998)	연령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성별
Lee, Seccombe, and Shehan(1991)	결혼
Blanchflower and Oswald(2001)	행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Lane(2000)	민주주의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사회적 자본, 시민적 자질
Nye, Zelikow, and King(1997)	정부에 대한 신뢰
Ruut(2000)	정부정책, 민주주의제도
Bruno and Eichenberger(1999)	분권화정도
UNDP의 인간개발지수(1990)	출생시 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국내총생산
국가후생지수(NIW, 2006)	소득분포, 고용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빈곤율, 기대수명, 자살률
성격차지수(WEF, 2006)	소득, 여성고위관료 및 임원수, 여성 순 고등학교등록자수, 탄생아성비 등
EIU지수(EIU, 2005)	기대수명, 커뮤니티생활(교회, 노조참가율) 등
세계최고의 국가지수(2010)	공인기관의 시험결과(TIMSS와PISA), 기대수명, 불평등, 생산성성장 등
생태계지수	경작지, 수력발전 등 (이산화탄소흡수 또는 방지시설)
BLI(Better Life Index, OECD, 2011)	인당방수, 고용률, 기대수명, 상해율, 인생만족도 등
경제지표와 대안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	
국내	중요항목
현대경제연구원EHI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등
LG경제연구원생활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	최종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 등
서울서베이조사	관광/여가, 문화, 환경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9)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OECD 행복지수	경제적 자원 및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자립, 사회적 요인-형평성 등
보건사회연구원(2011,2012)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 등
통계청(2011)의 녹색성장지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립, 신 성장동력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
통계청(2011)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이내찬(2012)	인당방수,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인당GDP 등
남주하·김상봉(2012)의 경제행복지수	소비, 미래성장 및 부의 스톡,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 및 안정 등
남주하·김상봉(2016)의 국민행복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각국의 지표 현황 및 준비
국가와 연도	중요항목
영국의 행복지수측정(2011)	삶의 질
독일의 행복지수(2013측정예정)	경제/사회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한 규제정책 등
이탈리아의 행복지수(2012)	웰빙과 발전
프랑스와 독일의 행복지수(2010)	경제성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
미국의 KNIS(2010)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 정의 등
일본의행복도지표(2011)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1992)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등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이용한 측정	중요항목
부탄국민총행복지수(GNH)	정신적 웰빙, 생태, 건강, 교육 등
Med Jones의 GNH	경제적 안정, 환경적 안정, 육체적 안정 등
영국의지구촌행복지수(HPD)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태학적 면적

□ 국내 국민행복지수의 주요 구성항목 및 의미

- 국내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

〈표 2〉 국민행복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방식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산식	출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6)	1인당소비지출	GDP내 최종가계소비 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15세 이상 인구	한국은행
	1인당교양 및 오락 비지출	GDP내 오락문화비 지출	오락문화비지출/15세 이상 인구	한국은행
	1인당정부부채	국가채무	국가채무/15세 이상 인구	통계청
	1인당자본스톡	유형고정자산	국부 유형고정자산/15세 이상 인구	통계청
	1인당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대학진학률	진학자/졸업자	교육통계연보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공(정부) 교육비지출	가계 최종소비지출/가구수	한국은행
		노동생산성 지수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통계청
삶의 질(6)	고용	가계신용	가계신용/15세 이상 인구	한국은행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	한국은행
		비정규직 비중	비정규직근로자/임금근로자	통계청
	건강	기대수명	0세의 기대여명	통계청
		사망률	1천 명당 사망자수	통계청
	민간교육비 지출	민간교육비부담	소비자물가지수 내 고등교육물가지수	통계청
		교육시설	10만 명당 교육시설 수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졸업률(학업중단률)	당해 학업중단자/전년말 재학생	통계청
	환경	온실가스배출량(CO2)	총배출량	환경부
		대기오염배출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의 각 배출량의 합	
		쓰레기 배출량	종량제 봉투 판매량	
	주거	소득증가율-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통계청, KB
	문화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통계청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8)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	중위소득 50%-150%	통계청
	물가	CPI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생활물가지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통계청
	소득분배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통계청
		절대적 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추계인구	통계청
	사회 안전	범죄율	범죄건수/추계인구*10000	검찰청
		이혼율	이혼건수/혼인건수*100	통계청
		자살률	자살건수/추계인구	OECD, 통계청
	부패와 신뢰수준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자료	국제투명기구
	자연재난/재해 안전	재난/재해 피해액	재난/재해 피해액(대설, 태풍, 호우, 풍랑 등)	소방방재청
	식품안전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부적합 건수/검사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청
	노후안정	55세 이상 고용률	55세 이상 취업자/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통계청
		노인빈곤율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시장소득 기준)	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주1: 범죄율의 범죄건수지표(강력범죄→총계)를 변경(2016.09), 이혼율은 이혼건수/혼인건수*100으로 변경 (2017. 06), 교육비지출은 가계 최종소비지출(교육비)/가구수

주2: 소항목 온실가스배출량은 CO2, CH4, N2O, HFCs, PFCs, SF6의 합으로 계산(CO2가 77%를 차지함)

주3: 중산층비중,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와 비례식을 설정하여 데이터 변경 (2020.06)

자료: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Fraser Institute, 환경부

- 국민행복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
 - 국민행복지수는 소항목 원자료들의 계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분기 이동평균으로 산출
 - 각 소항목들의 가중치, 긍정 및 부정항목을 이용해 AHP 가중치를 이용 한 가중합을 구함
 - 3개 대항목의 지수들을 산출하고, 대항목 값들의 평균을 이용
 - 2003년 1분기 대항목 값들의 평균을 100으로 전환
- 국민행복지수는 <표 1>의 구성요소들 중의 소항목 값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며, 분석기간 중 국민행복수준의 추세를 보기위한 scale을 나타냄
- 대항목 지수는 다양한 구성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냄
- 대항목 지수 산출방식 : $100+50 \times (\text{긍정적 항목}) - 50 \times (\text{부정적 항목})$ 로 전체 값을 산출하고 $100 \times \text{해당분기/기준분기}(2003\text{년 } 1\text{분기})$ 로 지수화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 긍정적 항목 :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인당 유형고정자산, 대학진학률, 가계당 교육비지출, 노동생산성지수
 - 부정적 항목 : 인당 정부부채, 인당 가계부채
 - 삶의 질
 - 긍정적 항목 : 고용률, 기대수명, 교육시설, 주거, 문화시설
 - 부정적 항목 : 비정규직비율, 사망률, 고등교육물가지수, 학업중단율,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오염배출량, 쓰레기배출량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 긍정적 항목 : 중산층비중, 55세 이상 고용률
 - 부정적 항목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절대적빈곤율,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부채지수, 재난/재해 피해액,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노인빈곤율
- 국민행복지수의 산출 : 각 대항목을 산출한 후 대항목 값의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여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 $(\text{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 \text{삶의 질} + \text{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 3$
- 국민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한 각 구성요소들의 가중치(중요도)는 <표 3>의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결과를 활용

-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최종 산출
-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남

〈표 3〉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중요도)

구분	일관성비율 0.1이하	일관성비율 0.1초과	전체	동등 가중치
대상자수	19	16	35	
1.1 1인당소비지출	5.82	8.30	6.95	5.56
1.2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4.13	3.47	3.83	5.56
1.3 1인당 정부부채	2.89	3.36	3.11	5.56
1.4 1인당 자본스톡	6.12	5.73	5.94	5.56
1.5 1인당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8.82	8.48	8.66	5.56
대학진학률	1.78	2.03	1.89	1.85
가구당 교육비지출	2.46	1.78	2.15	1.85
노동생산성 지수	4.57	6.20	5.31	1.85
1.6 1인당 가계부채	4.25	5.51	4.83	5.56
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32.03	34.85	33.32	33.33
2.1 고용	9.57	11.98	10.67	5.56
고용률	7.38	8.68	7.98	2.78
비정규직 비중	2.17	3.26	2.67	2.78
2.2 건강	9.43	14.69	11.83	5.56
기대수명	5.26	9.26	7.09	2.78
사망률	4.16	5.62	4.83	2.78
2.3 민간교육비 지출	6.14	6.49	6.30	5.56
고등교육물가	1.44	2.18	1.78	1.85
교육시설	2.80	2.29	2.57	1.85
학업중단률	2.25	2.03	2.15	1.85
2.4 환경	3.55	6.18	4.75	5.56
1인당 온실가스 배출	1.03	1.61	1.30	1.85
대기 오염 배출량	1.42	3.13	2.20	1.85
쓰레기 배출량	1.12	1.44	1.27	1.85
2.5 주거	3.84	4.65	4.21	5.56
2.6 문화시설	2.43	3.48	2.91	5.56
2. 삶의 질	34.96	47.47	40.67	33.33
3.1 중산층비중	3.09	1.61	2.41	4.17
3.2 물가	3.60	1.84	2.79	4.17
소비자물가지수	1.44	0.92	1.20	2.08
생활물가지수	2.15	0.92	1.59	2.08
3.3 소득분배	4.12	1.97	3.13	4.17
지니계수	1.13	0.55	0.87	1.39
소득5분위배율	1.17	0.51	0.87	1.39
절대적 빈곤율	1.80	0.91	1.39	1.39
3.6 사회안전	6.38	3.18	4.92	4.17
범죄율	3.45	1.18	2.41	1.39
이혼율	1.07	0.50	0.81	1.39
자살률	2.31	1.48	1.93	1.39
3.7 부패와 신뢰수준	5.67	2.62	4.28	4.17
3.8 자연재난/재해 안전	2.51	1.19	1.91	4.17
3.9 식품안전	2.76	2.19	2.50	4.17
3.10 노후안정	4.86	3.13	4.07	4.17
55세 이상 고용률	2.94	1.15	2.12	1.39
노인빈곤율	2.68	1.99	2.36	1.39
3.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32.99	17.73	26.01	33.33
합	100.00	100.00	100.00	100.00

2. 분석방법론

□ 이전 연구방법론의 문제점

- 새로운 분기 자료를 추가할 경우, Min보다 Max가 바뀌게 되어 값들이 계속 변화하게 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경제지표들과 관련된 소항목들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행복지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원자료들의 계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분기 이동평균값을 구한 후 가중치의 합을 산출

-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통해 자의적인 가중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중치(중요도)를 추정: 35명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
- 산정기간은 2003년 1분기~2020년 3분기

〈표 4〉 주요 중항목과 국민행복지수와의 중요도(상위 10대 중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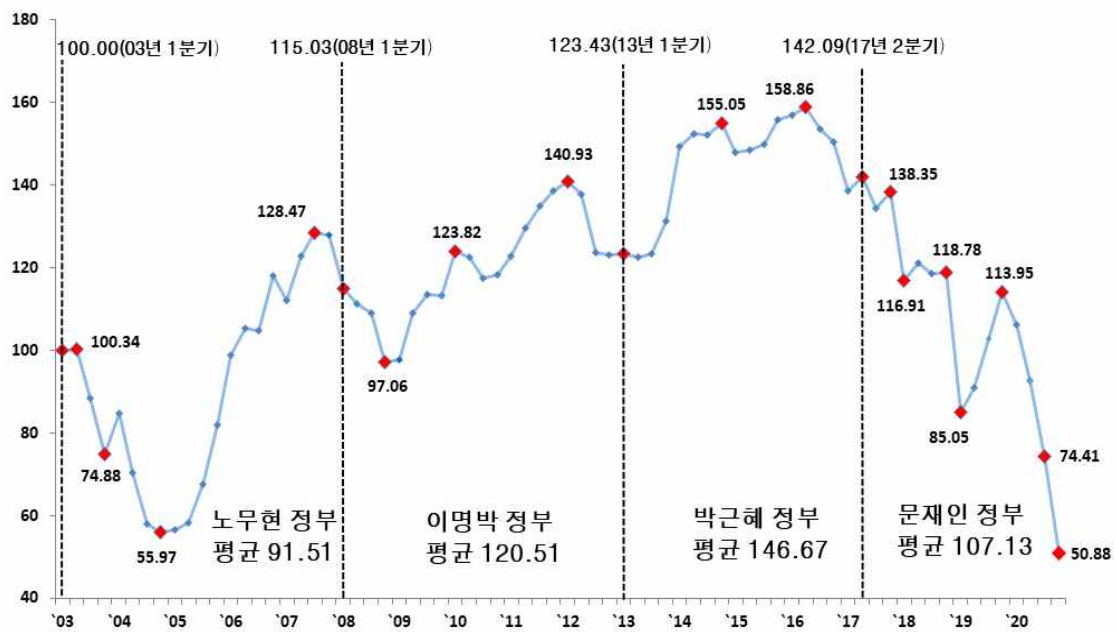
순위	중항목	중요도(AHP비중;%)
1	고용	9.57
2	건강	9.43
3	1인당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8.82
4	사회안전	6.38
5	민간교육비 지출	6.14
6	1인당 자본스톡	6.12
7	1인당 소비지출	5.82
8	부패와 신뢰수준	5.67
9	노후안정	4.86
10	1인당 가계부채	4.25

3. 국민행복지수의 측정 결과

□ 분석결과

- 국민행복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4분기 55.97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로 상승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
- 2016년 2분기 최고점(158.86)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50.88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인해 인당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인당 교양오락비, 인당 실질최종소비,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크게 감소
 - 삶의 질 항목 중 주택가격상승률의 급증으로 인해 주거지수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항목 중 긍정적 요인이 하락과 부정적 요인의 상승은 행복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국민행복지수



주: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기간 중 국민행복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타낸 것으로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

□ 중요 시점 비교

- 2004년 4분기(과거 최저수준)와 2020년 4분기의 비교
 - 카드 사태로 인한 국민행복지수의 과거 최저점과의 비교
 - 대항목에서 삶의 질(61.65→77.71)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7.71→99.76)이 상

승하였으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03.95→96.25)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긍정적 항목 중 대학진학률(81.30%→70.40%), 가계의 교육비지출(30.0만원→23.5만원) 하락, 부정적 항목 중 인당 정부부채지수(0.007→0.015), 인당 가계부채(1,670.1만원→3,525.0만원) 상승
- 삶의 질 긍정적 항목 중 기대수명(77.80세→83.20세), 교육시설지수(40.34→41.07), 문화시설지수(1.84→4.82) 상승, 부정적 항목 중 비정규직비율(36.99%→36.40%) 하락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긍정적 항목 중 중산층비중(70.00%→71.61%), 55세 이상 고용률(44.29%→50.19%) 상승, 부정적 항목 중 지니계수(0.28→0.27), 범죄율(40.93%→30.63%), 식품안전지수(1.50→0.40) 하락

○ 2009년 1분기(최근 최저수준)와 2020년 4분기의 비교

- 서브프라임 충격이후 최저 수준과 비교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10.30→96.25)과 삶의 질(93.26→77.71),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107.38→99.76) 모두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긍정적 항목 중 인당 교양오락비(26.9만원→26.6만원), 대학진학률(77.80%→70.40%), 가계의 교육비지출(33.1만원→23.5만원) 하락, 부정적 항목 중 인당 정부부채지수(0.010→0.015), 인당 가계부채(2,057.9만원→3,525.0만원) 상승
- 삶의 질 부정적 항목 중 비정규직비율(34.92%→36.40%), 사망률(5.00%→5.70%), 쓰레기배출량(871.5톤→1,025.3톤) 상승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정적 항목 중 소비자물가지수(87.54→105.59), 생활물가지수(88.76→105.29), 소득5분위배율(6.11→6.43), 절대적빈곤율지수(3.18→3.20), 이혼율(40.03%→46.34%), 부패지수(5.50→5.90) 상승

○ 2016년 2분기(최근 최고수준)와 2020년 4분기의 비교

- 서브프라임 이후 가장 높은 국민행복지수 시기와 비교
- 대항목에서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5.02→99.76)은 상승하였으나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08.83→96.25)과 삶의 질(107.77→77.71) 하락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긍정적 항목 중 인당 교양오락비지출(32.2만원→26.6만원), 가계의 교육비지출(29.0만원→23.5만원) 하락, 부정적 항목 중 인당 정부부채지수(0.014→0.015), 인당 가계부채(2,779.3만원→3,525.0만원) 상승
- 삶의 질 긍정적 항목 중 고용률(60.50%→60.08%), 교육시설지수(41.86→41.07) 하락, 부정적 항목 중 비정규직 비율(32.80%→36.40%), 사망률(5.50%→5.70%), 학업

중단율(0.013%→0.018%), 온실가스배출량(656.00→704.00) 상승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긍정적 항목 중 중산층비중(71.00%→71.61%), 55세 이상 고용률(48.42%→50.19%) 상승, 부정적 항목 중 지니계수(0.28→0.27), 범죄율(36.11%→30.63%), 재난·재해 피해액(2,839.9억원→1,343.6억원) 하락

○ 현재 분기와 현정권의 시작분기, 전년동기, 전분기대비 지수의 변화

- 국민행복지수는 142.09(2017년 2분기) → 113.95(2019년 4분기) → 74.41(2020년 3분기) → 50.88(2020년 4분기)으로 변화
- 대항목에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06.36→110.16→100.26→96.25), 삶의 질(102.47→88.06→83.81→77.71)은 지속적인 하락추세,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4.93→99.80→99.74→99.76)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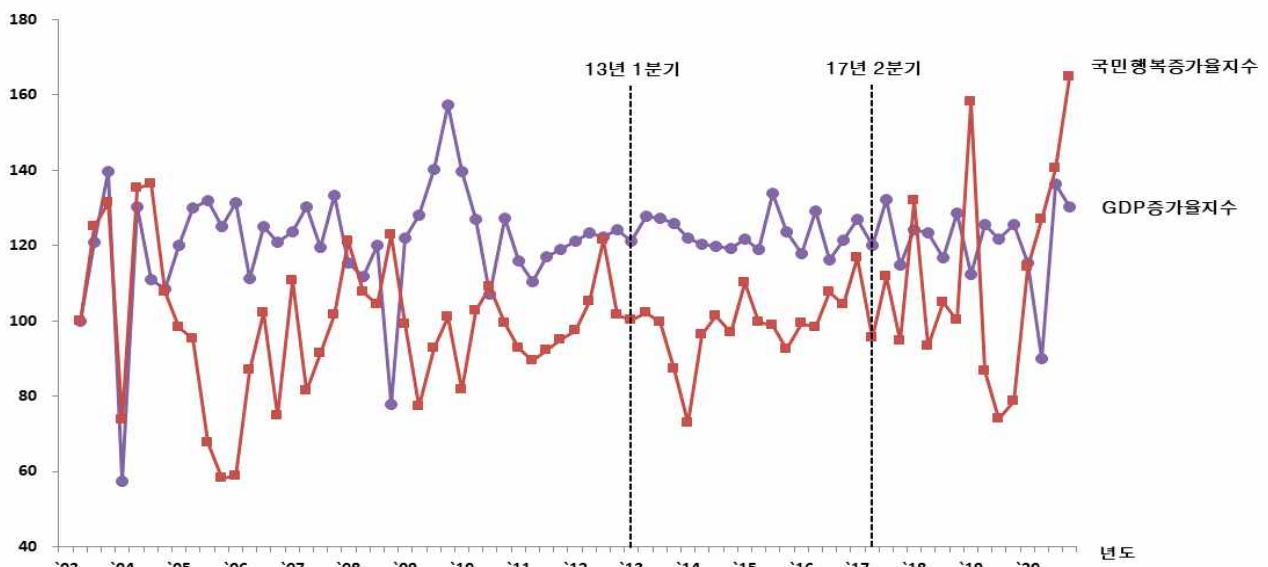
〈표 5〉 주요 시점별 국민행복지수의 지표값 변화

대항목의 변화			
구분	2017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142.09	74.41	50.88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06.36	100.26	96.25
삶의 질	102.47	83.81	77.71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94.93	99.74	99.76
중항목의 변화(1개 소항목만을 포함하는 변수 포함)			
구분	2017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고용	96.82	60.55	45.69
건강	74.51	72.01	72.01
1인당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44.55	56.84	52.75
사회안전	93.91	86.20	86.20
민간교육비 지출	80.00	35.62	36.14
1인당 자본스톡	91.57	95.16	94.69
1인당 소비지출(만원)	452.2	455.3	457.8
부패와 신뢰수준	5.4	5.9	5.9
노후안정	89.29	98.45	97.42
1인당 가계부채(만원)	3,014.8	3,467.0	3,525.0
소항목의 변화			
구분	2017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1.2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만원)	31.6	29.0	26.6
1.5 가구당 교육비지출(만원)	26.1	24.3	23.5
2.1 고용률	60.75	60.43	60.08
2.5 주거	1.40	2.52	4.54
3.2 소비자물가지수	102.72	105.52	105.59
3.2 생산자물가지수	102.85	105.38	105.29
3.10 55세 이상 고용률	49.19	50.26	50.19

□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증가율지수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상관계수 $= -0.039$)

-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DP증가율을 분석기간 중 지수화 후 2003년 1분기의 값을 100으로 전환
- 국민행복지수의 경우, 증가율로 전환한 후 0~100 지수화하되 2003년 1분기의 값을 100으로 전환하여 비교
- 두 변수사이의 상관계수는 -0.039 로 미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과 상관정도가 낮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경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보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성장보다 여가, 환경 등을 고려한 질적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
 - 지금까지 각국에서 국민행복을 측정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양적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이나 사회 안전 등이 국민행복에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

〈그림 3〉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증가율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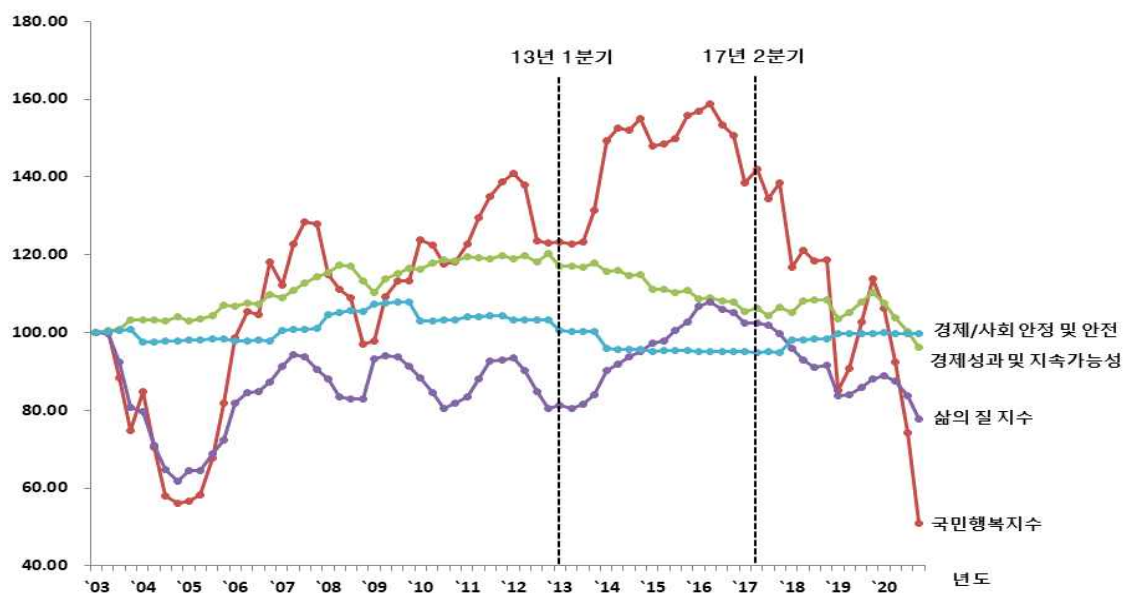
주1: 국민행복증가율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증가율을 지수화한 후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전환

주2: GDP증가율지수는 GDP경제성장률을 지수화한 후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전환

□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 지수와의 관계

-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행복지수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상관계수=0.572)
- 국민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상관계수=0.789)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좋아질수록 국민행복지수는 높아지나 전반적으로 안정 및 안전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상관계수=-0.206)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악화되어도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다른 두 개 항목의 증가가 있기 때문

〈그림 4〉 국민행복지수와 3대 대항목 지수 추이



〈표 6〉 국민행복지수와 대항목간의 상관계수

항목	종합지수	GDP 성장률지수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종합지수	1.00				
GDP성장률지수	0.097 (0.421)	1.00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0.572 (0.000)	0.098 (0.418)	1.00		
삶의 질	0.789 (0.000)	0.091 (0.453)	0.097 (0.417)	1.00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0.206 (0.083)	0.067 (0.581)	0.502 (0.000)	-0.215 (0.070)	1.00

주: ()의 수치는 유의확률

4.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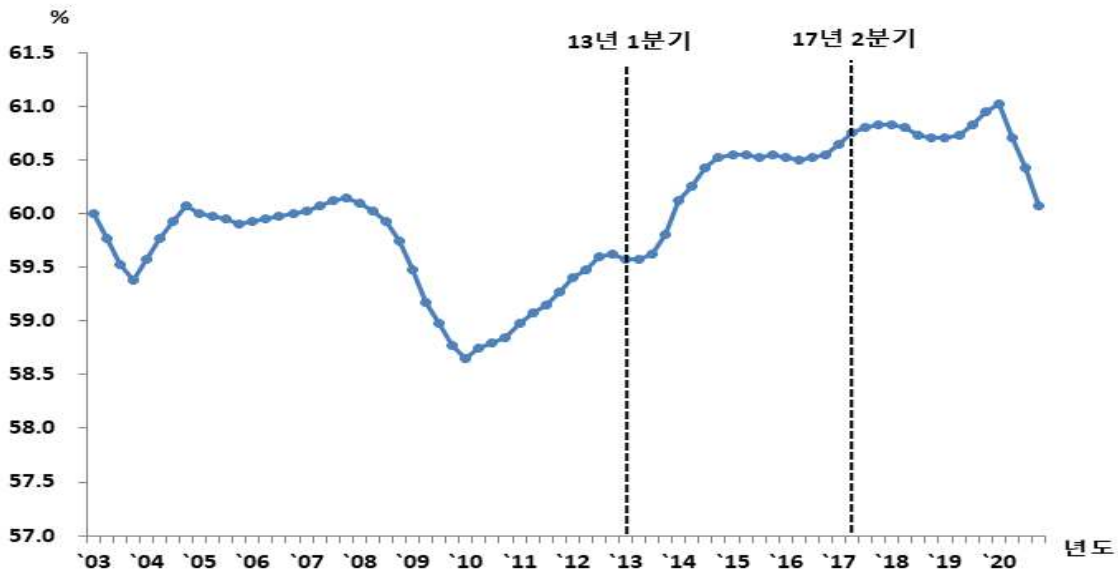
□ 정책적 시사점

- 현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민행복지수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주요 중항목의 중요도와 공약의 중요도
 - <표 4>에 의하면 상위 10대 중항목은 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남
-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은 고용률, 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이 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현 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시사
 - 범죄율, 이혼률, 자살률, 자연재난, 식품안전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국민안전지수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안전지수」를 참고할 것
- 주요 공약과 정책적 시사점
 - 향후 국민행복지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주요공약의 실천과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
 - 특히 최근 국민행복지수가 변화하는 이유도 상기 주요공약과 관련된 항목들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 주요 요소별 추이

- 고용률은 2007년 4분기 이후 감소세, 2010년 1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2분기 이후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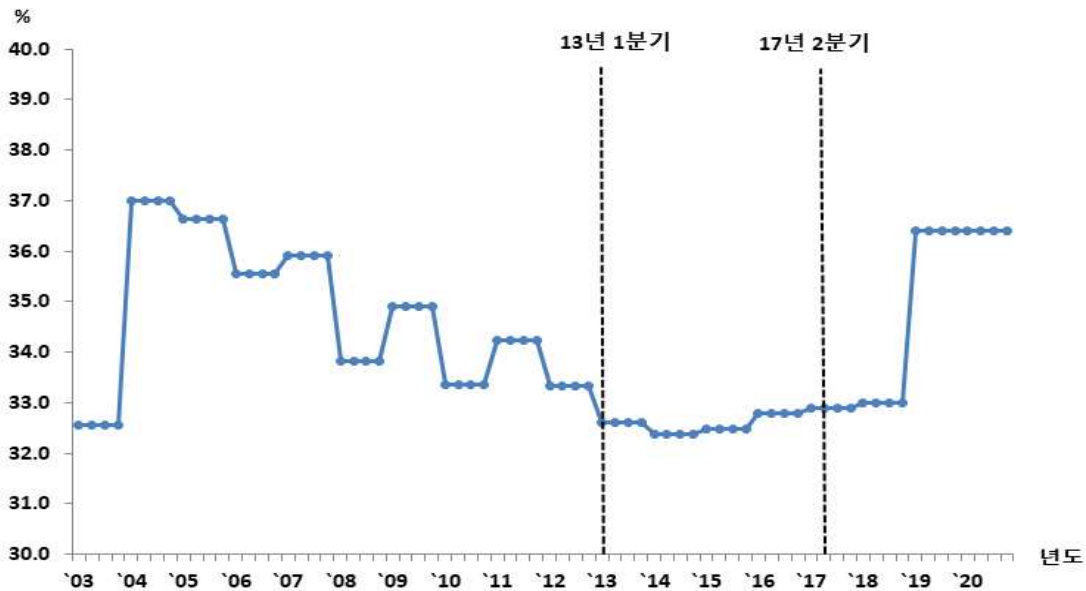
〈그림 5〉 고용률 추이



주: 고용률지수는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값이며,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10년 1분기의 58.65%, 최고값은 2020년 1분기의 61.03%

○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1분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1분기에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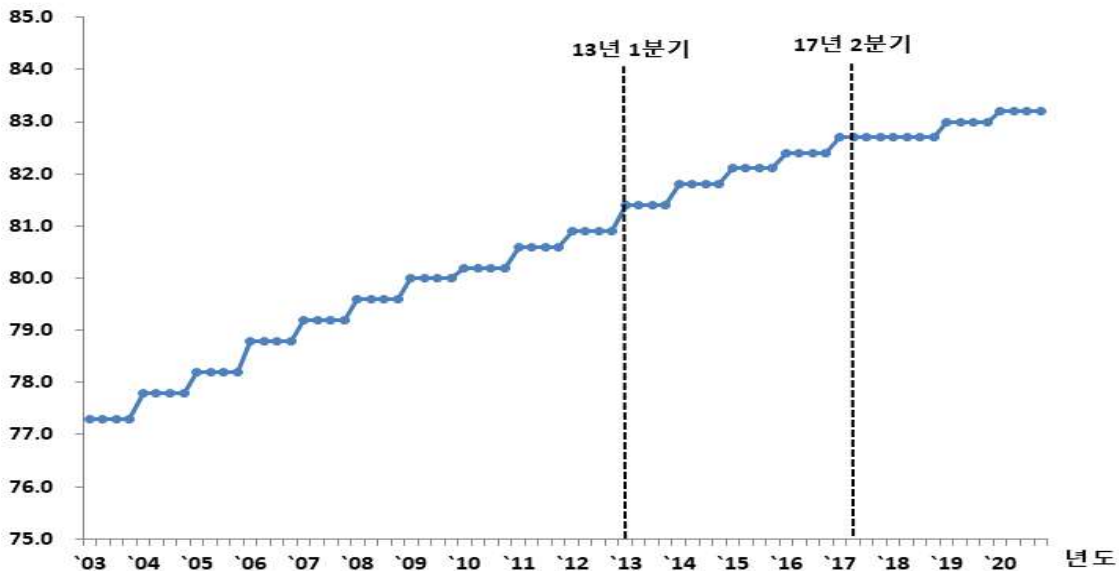
〈그림 6〉 비정규직비율 추이



주: 비정규직비율지수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14년 4분기의 32.4%이며, 최고값은 2004년 4분기의 37.0%

○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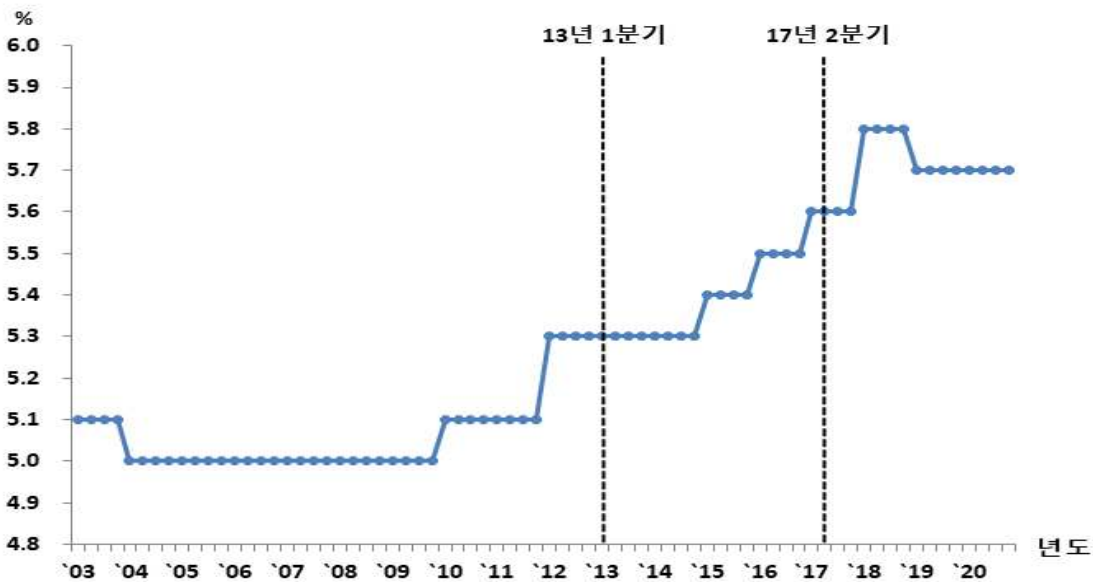
<그림 7> 기대수명 추이



주: 기대수명지수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03년 4분기의 77.3이며, 최고값은 2020년 4분기의 83.2

○ 사망률은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 19년 1분기에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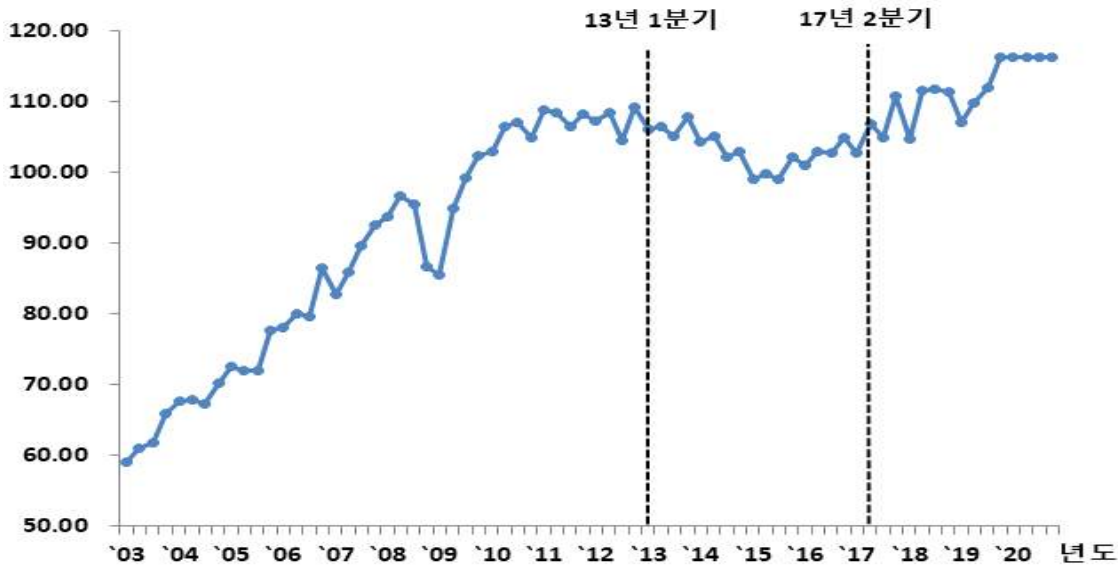
<그림 8> 사망률 추이



주: 사망률지수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09년 4분기의 5.0%이며, 최고값은 2018년 4분기의 5.8%

○ 노동생산성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15년 1분기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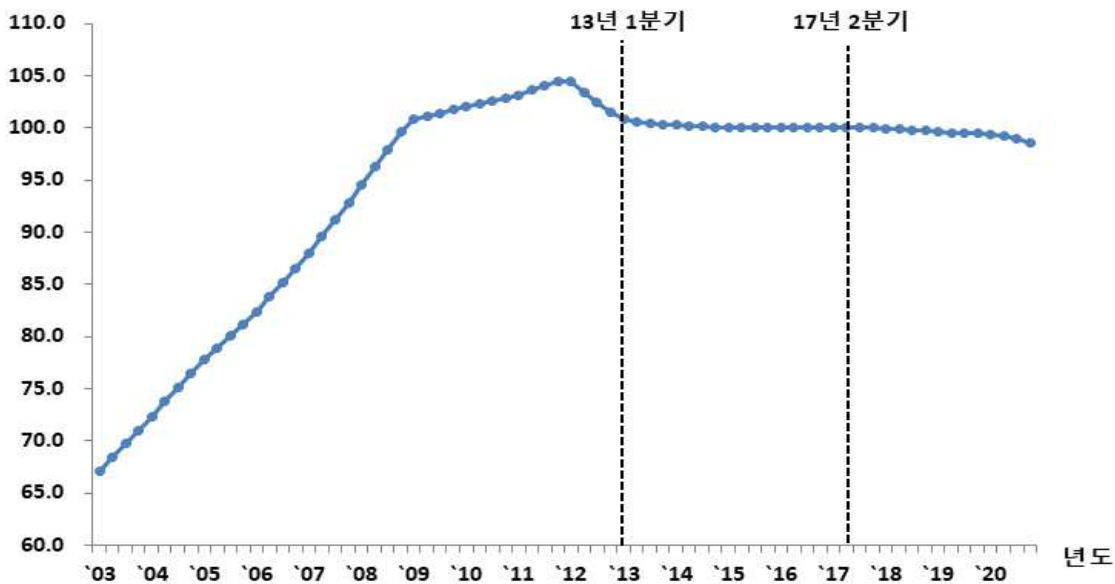
〈그림 9〉 노동 생산성지수 추이



주: 노동 생산성지수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03년 1분기의 59.10이며, 최고값은 2020년 4분기의 116.30

○ 고등교육물가지수는 17년 2분기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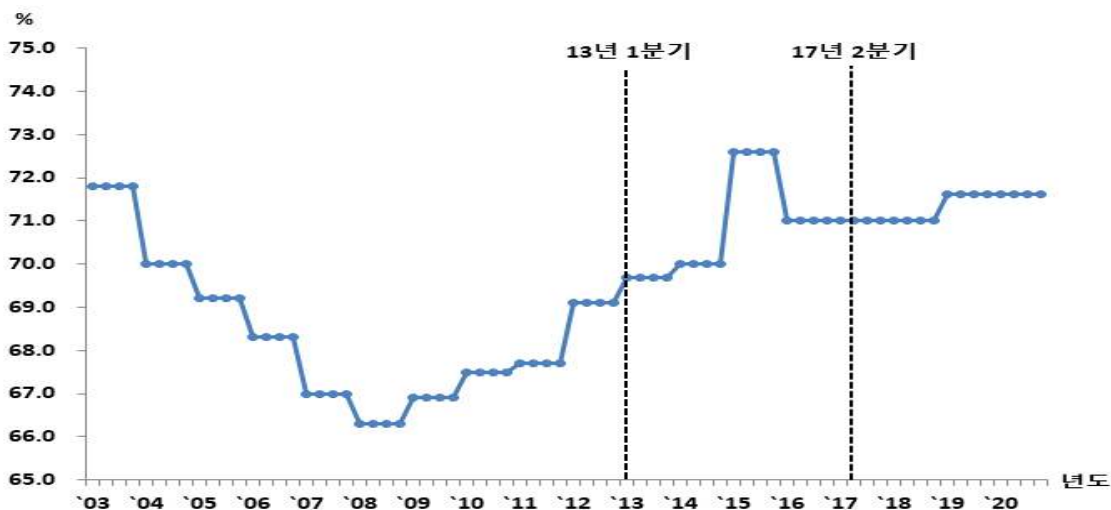
〈그림 10〉 고등교육물가지수 추이



주: 고등교육물가지수는 실제 데이터를 4분기 이동평균한 값.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03년 1분기의 67.15이며, 최고값은 2011년 4분기의 104.46

○ 중산층비중은 2008년 이후 상승하다 2016년 하락, 2019년 1분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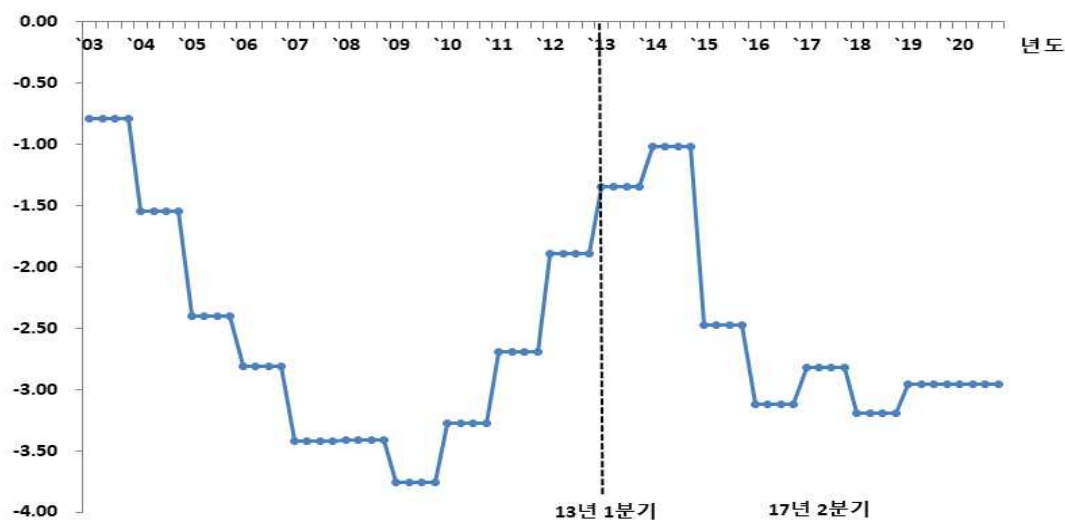
〈그림 11〉 중산층비중 추이



주: 중산층비중지수 최저값은 2008년 4분기의 66.3%이며, 최고값은 2015년 4분기의 72.6%

○ 소득분배지수는 2014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이는 양극화가 심화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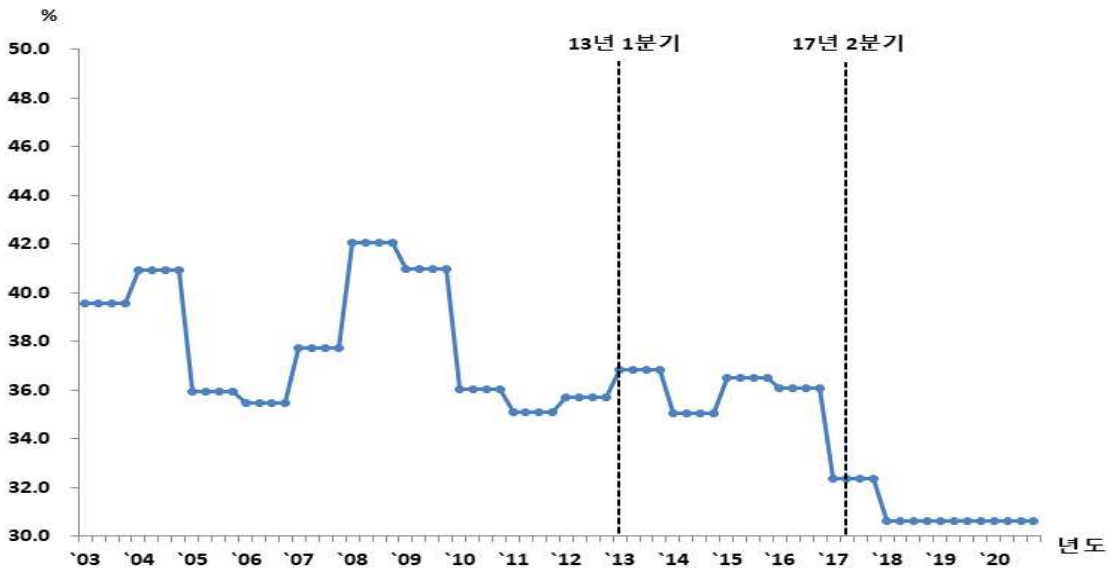
〈그림 12〉 소득분배지수 추이



주: 소득분배지수는 중항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지수에 포함되어있는 소항목(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절대적 빈곤율)의 지수들을 가중평균한 후 합.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09년 4분기의 -3.85이며, 최고값은 2003년 4분기의 -0.79

- 사회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율지수의 경우 2008년 고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

〈그림 13〉 범죄율 추이



주: 범죄율지수 분석기간 중 최저값은 2020년 4분기의 30.63%이며, 최고값은 2008년 4분기의 42.07%

□ 분석의 한계점

- 지금까지 양적 경제성장이 국민행복과 관련이 적다는 시각 하에 다양한 국민행복 지수의 산정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음
- 본 연구는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비교한 것으로 국민행복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장의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을 포함하는 34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다만 국민의 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서 과거 17년 간 존재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항목선택 시 제한적
 - 각 소항목들의 실제 데이터 변화가 국민행복지수에 미치는 정확한 분석은 한계가 있음